



2024년 5월 19일(제1194호) **성령 강림 대축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사랑이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예전부터 가졌던 질문이고 아마 평생을 안고 살 질문일 것 같습니다. 사랑에 정해진 형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사랑을 오직 둘 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연극이라고 말했나 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과 나의 사랑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둘만 할 수 있는, 비교가 불가능한 모습의 사랑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 사건, 부활과 성령을 보내주심. 이 전부는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힘들 때 이끌어 주십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인류의 구세주가 죽었다고 자책할까 예수님께 서는 서둘러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 곁에 머물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각기 다른 형태는 모두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느님을 믿지만, 반대로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는 모습이 다르면 보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면 느끼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서는 누구에게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없으십니다. 각 개인이 느낄 수 있게 각기 다른 상황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지요. 누구는 집안일을 하면서, 누구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누구는 직장

“사랑의 형태”

에서. 이렇게 각기 다른 장소와 상황에 맞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여러 가지인가 봅니다. 바로 사도는 코린토 1서를 통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라고 증언합니다. 각자가 처한 어려움이 다르니 개인에게 맞는 은총을 하느님께서 알맞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빌어주셨던 평화를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으니,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모습도 각기 다르겠지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기보다, 저 사람은 저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사랑하고 그 모습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는 여러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을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박동진(임드레이) 신부
해병중앙(해병대사령부)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회답송 제 2 독 시 부속기

사도 2,1-11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1코린 12,3ㄷ-7.12-13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둔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쌍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영성제송

요한 20,19-23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히느님의 종 최양입 토머스 신부의 시집집

열네 번째 시집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페레올) 주교님은 양반 계급만 너무 편애하시어 이미 너무나 비참하고 억눌려 있는 일반 서민들을 더욱 억누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자들 사이에 나날이 더욱 불화가 심해지고, 많은 이들이 의분을 느끼고 자포자기에 빠졌습니다. 또한 교우들의 열심이 나날이 감퇴되어 가고, 악한 사정이 더욱더 악하게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신부님께 드리는 이유는, 신부님께서 우리 조선 백성의 정신 상태와 현실성과 풍속을 미리 완전히 파악해 두시고, 장차 조선으로 파견되는 모든 선교사 신부님들에게 이런 지식을 미리 넣어 주는 것이 무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까닭입니다. 선교사들이 이러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지 못한 채 조선에 오게 되면, 자기의 측근에서 시종드는 복사들 말만 듣고 판단을 그르치거나 또는 그 밖의 그릇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과 신자들에게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제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기 의견이 풍부하니 만큼 많은 일에 그대로 내버려두어도 무방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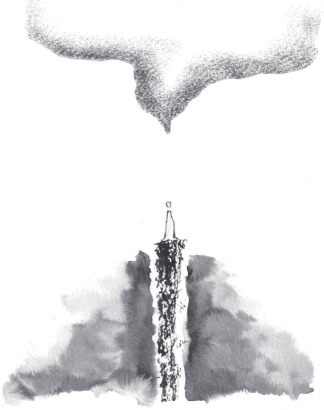
하기야 조선 백성의 사회 구조가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재 조선의 양반 제도는 일부 양반에게 모든 권리를 인정해 주어서 그들 자신만을 위하여 남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반면에 일반 서민은 양반들의 온갖 부당한 횡포를 예누리없이 당하도록 강요하는 제도입니다. 그리하여 교만한 양반들을 언제나 더욱 오만방자해지도록 부추기고, 비참한 백성들을 언제나 더욱 비참해지도록 내리누르는 것이 조선의 사회 구조입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하에서는 형제의 우애와 애덕이란 것이 있을 수 없고, 천부적 인권은 완전히 무시됩니다. 오로지 양반 계급만 치켜세우고 양반 계급이 아닌 일반 서민은 마치 내버려진 자처럼 억압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히느님의 종 최양입 토머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너는 나의

그래서 물었다.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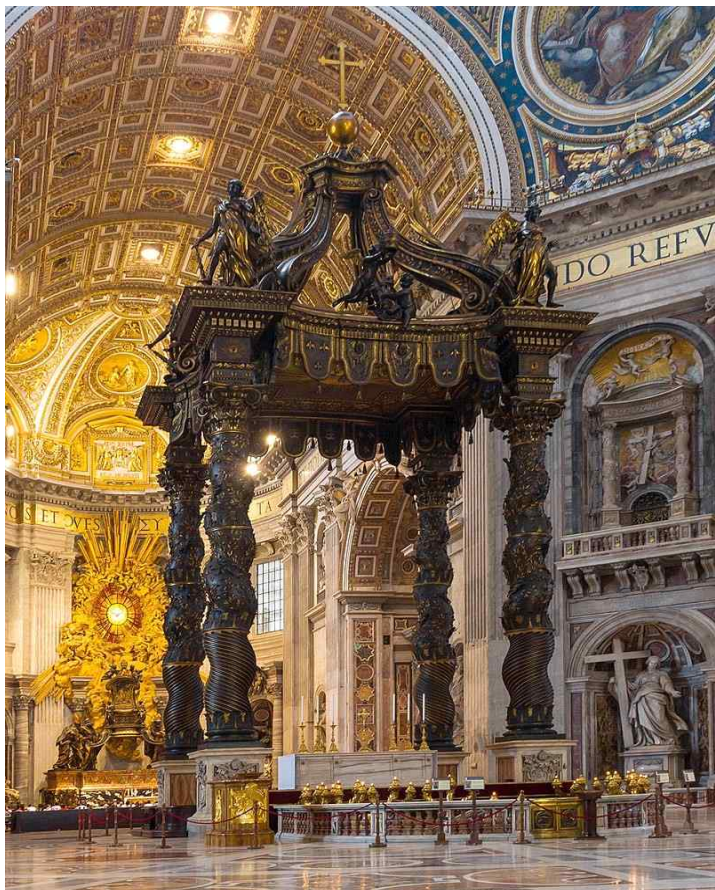
하늘이 열리고,
커다란 새가
내 머리를 날며.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교황의 의자 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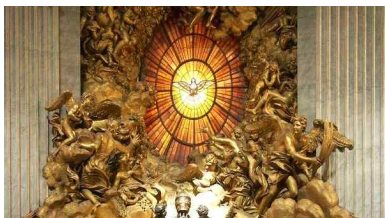
로마의 성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광경이다. 교황님이 미사를 드리시는 발다키노(Baldacchino: 천공, 우주를 상징) 너머로 보이는 것이 베드로 성인의 의자에 헌정된 제대이다. 사진으로만 보아도 얼마나 거대한 크기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베드로 성인이 사용했다고 알려진 나무 의자에 청동을 덧입혀 제작한 의자가 중앙에 있고, 4개의 의자 다리를 교회 교부들이 잡고 있다. 이 의자는 천사들과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데, 마치 의자 자체가 두둥실 떠오르려는 것을 교부들이 잡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베르니니, 1623년~1634년 제작
성베드로 대성당 / 로마, 이탈리아



우리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의자 위로 보이는 스테인드글라스에 제작된 성령을 뜻하는 비둘기, 그리고 그 비둘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으로, 모두 청동으로 제작되었는데, 이곳에서 들어오는 빛이 실제로 이 공간을 밝게 비춘다.



성령을 뜻하는 이 비둘기와 이곳에서 들어오는 빛은, 마치 그러한 빛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준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성령 강림 대축일: 백호 장민기 신부

◆ 교구장 동정

- 교구민을 위한 교구장 집전 미사
 때·곳: 5월 19일(주일) 11: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수녀 하계 수련회 시작미사
 때·곳: 5월 21일(화) 16:3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문화예술위원회 2024년 제1차 정기회의
 때·곳: 5월 23일(목) 14:00, CBCK
-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주관
 AFCMA 2024 조직위원회
 때·곳: 5월 24일(금) 16:00, 군중교구청

“화해와 자유를 위한 교해상인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